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11. 20 ~ 2022. 12. 10 제274호

동성애와 낙태 가르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폐기돼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하 시안)에 동성애 옹호와 젠더, 페미니즘 등 대다수의 학부모들과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 최근 전국학부모단체들과 한국교회 총연합 등 단체들이 이번 시안을 전면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지저스아미 11월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왜곡된 이념교육의 민주시민교육: 교과서의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집단의 정치교육, 이념교육이다.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는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해 학부모들은 수년간 계속 반대해왔지만,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시된 교육 내용이 초·중·고 교과서에 모두 반영되도록 개정 시안 총론이 쓰여졌다.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 개념 자체에 대한 점검이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 생태교육, 성평등, 편향된 평화통일교육, 사실을 왜곡한 채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포교 교육,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 교육, 그리고 계급 투쟁적 사고의 편향된 인권교육,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동성애와 낙태를 적극 지지하는 인권교육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성적 타락 부추기는 성평등과 조기성애화 교육: 시안은 헌법에서 언급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성인 ‘젠더 평등’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젠더에는 남성, 여성 이외에도 LGBTAIQOC 등 다양한 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제3의 성으로서 수십 가지의 성이 언급되고 있다. 2022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 강조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린 정의에는 ‘젠더 정체성과 역할’, ‘성적 지향’뿐 아니라 ‘에로티시즘’, ‘쾌락’, ‘성적 친밀감’, ‘환상’, ‘욕망’ 등 외설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더 나아가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며 ‘조기성애화’를 교육하고 있다. 2009년도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조기성애화’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실시하도록

돼 있다.

▶낙태/재생산권 강조로 왜곡된 성교육: 시안은 우리 자녀들을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통해 성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즉 프리섹스, 낙태 권리를 포함하는 ‘성·재생산권 강 권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출산’에 대해 ‘재생산’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생산은 생명이 없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태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다보면 우리 인식 자체도 바뀌어 태아를 인간의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쉽게 낙태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재생산 권리’가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라고 교육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 자녀의 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표현 뒤에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GNPNEWS]



Interview



김종두 대표(사단법인 올피플)

“성경을 담은 전도만화로 지구촌을 덮고 싶어요”

전북 군산 앞바다 개야도. 화백 김종두 대표가 나고 자란 곳이다. 어느 날 연평도에서 조기잡이를 하고 있던 소년 김종두의 아버지가 북한 경비정에 끌려갔다. 그때 소년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 남편의 남북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바다

에 뛰어들었다. 마침 옆에 있던 누나의 외침 소리를 듣고 동네사람들이 간신히 물에서 건져냈다. 1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내려온 간첩으로 몰려 자백을 강요받았다. 고문까지 서슴지 않던 경찰은 글씨를 못 쓰는 아버지에게 한글

을 가르쳐 불펜 한 다스기 닳도록 자백서를 쓰게 했다. 1년여 뒤 아버지는 풀려났지만 이미 폐인이 돼 있었고 고통스럽게 사시다 돌아가셨다. 그때 소년의 나이는 9살이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58)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생명의 특권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율법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결론입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로마서 8:3)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십자가의 도(道)로 그렇게 하십니다.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계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로마서 8:4)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능성을 계속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와 말씀대로 살아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일러스트-김경선

(로마서 8:1~2) 이제는 율법에도 부끄럽지 않게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빛을 다 갚고 우리를 건져서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우리가 온갖 힘을 써서 살아내는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지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사상입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2년 만에 끝난 전쟁, 에티오피아의 화평을 위해



▲ 에티오피아의 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제공: WMM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한 교회 주일학교 시간.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선생님을 향하고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와 반군인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의 평화협상이 타결되면

이 아이들의 미래에 약간의 희망의 빛이 비쳤다. 지난 3일 에티오피아 정부와 TPLF는 아프리카연합의 중재 아래 2년여 만에 휴전 합의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티그라이 내전으로 최대 50만 명이 사망

하고 수백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또 전쟁범죄 수준의 잔학행위와 종족 말살이 보고됐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적어도 에티오피아 북부에서만 약 13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인도주의적 도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다니엘 본지 통신원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캠프를 진행했다. 훈련생은 단 한 사람 '아베라' 뿐이었지만, 아베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십자가를 통해 원수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십자가의 화평이 에티오피아에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하자.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엡 2:16~17)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伊-獨 난민 놓고 신경전... 이주민 구조선 3척 지중해 표류

지중해에서 표류하던 이주민 1075명을 구조한 난민 구조선 3척이 3주 가까이 해상을 떠도는 가운데, 이탈리아와 독일이 이주민 수용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탈리아는 6일 어린이와 여성, 부상자 등 140명의 하선을 일단 허용했고, 프랑스는 한 척의 하선을 9일 허용했다.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을 품는 공황과 자비의 마음을 이탈리아와 독일에 허락해 주십시오. 자국의 이익이나 책임 소재보다 생명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美 종교 자유 단체들, 시진핑 연임은 "종교 박해 암시 신호"

최근 폐막한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자, 미국의 종교 자유 단체들이 '소수민족 및 종교 박해를 암시하는 신호'라고 우려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이로써 위구르인, 티베트인, 몽골인 등 비중국인과 기독교 박해 심화가 우려된다.

박해가 오히려 신앙을 성장시켰다고 고백하는 중국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산당에게 박해를 받아온 중국 교회를 믿음으로 더욱 견고케 하시고, 교회와 소수민족을 박해하는 시진핑이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깨달아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北, 미사일 하루 발사 1000억 원... 1년간 중국서 수입한 쌀 규모

북한이 지난 2일 하루 새 미사일 25발 가량을 발사하면서 쓴 비용이 100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북한이 1년간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쌀 규모로,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굶주리고 병들어가는 주민들을 살리기는커녕, 목숨값과 바꾼 막대한 비용으로 야욕을 채우는 김정은 정권을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속히 돌이켜 악을 그치게 하시고, 북한 교회와 주민들에게는 살 길을 여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부요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11월 21일 ~ 2022년 12월 10일

- 11월 21일 ~ 11월 26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광주 북구 / 광주예수마음교회(박**)010-2330-5849, 11.21~25(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11.21~25(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1.24(18시)~26(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11.25(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26(0~12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그 외 10교회 진행중.

- 11월 28일 ~ 12월 3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1.29(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12.2(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12.2(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2.2(12시)~3(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12.2~3(05~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그 외 8교회 진행중.

- 12월 5일 ~ 12월 10일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문**)010-6687-9266, 12.5(05~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2.5~7(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12.5~10(07~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12.8(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12.6, 8~10(20~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2.9(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그 외 6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전 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전 세계 교회가 매년 11월 첫째, 둘째 주일에 동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연합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 기도의 날'이 13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세계 기도의 날은 1996년, 세계 복음주의 협회 종교자유위원회(World Evangelical Association for Religious Liberty)에 의해 시작됐으며, 매년 11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을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지켜오고 있다.

지금은 오픈도어 선교회와 세계 기독교연대(CSW) 등이 연합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순교자의소리(VOM)는 레베카의 영상을 공개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레베카는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하람에 의해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 보코하람은 그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남편과 아들을 살해했다. 비탄에 잠겨 몇 달을 보낸 레베카는 집으로 돌아온 후 새 까맣게 타버린 집의 잔해 속에서 자신의 성경을 발견했다. 그녀는 "나는 아직도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3억 60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인해 박

해를 받고 있다. 올해 기도는 중국, 이라크, 쿠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또한 치명적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란과 같은 국가의 신자들의 곤경과 필요에 대해서도 시사한다.

영국에 기반을 둔 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Alliance)의 알리시아 에드먼드는 작년에 약 3000명의 기독교인이 온라인 기도회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에드먼드는 "기도회는 우리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게 하는 절호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월드 헬프(World Help) 창립자인

버는 브루어는 13일, 조지아주 델러스에 있는 웨스트릿지침례교회의 성도들에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다른 교회들도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브루어는 북한과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공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그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그들은 더 많은 성경을 원한다."고 말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주님은 모든 과부의 남편이 되어서므로 저는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 레베카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나이지리아의 레베카'의 한 장면. 잿더미가 된 집의 잔해에서 건진 성경을 들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Voice of the Martyrs Korea 캡처

현장 리포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랜드캐니언을 다녀오다

경북 의성에 소재한 삼성중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조과학탐사' 프로그램을 진행, 지난 9월 29일부터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그랜드캐니언 등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화론이 거짓인 것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다. 이 탐사과정을 인솔한 선생님과 학생들의 창조과학탐사 후기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8박 11일의 창조과학탐사여행을 떠나다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준비에도 창조과학탐사의 길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긴장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2022년 2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말씀을 품게 하시며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다. 이번 탐사 여행을 위한 경비 전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다녀올 수 있게 되면서 준비는 발빠르게 시작됐다.

까다로운 미국 입국과 돌아오는 일정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8개월간 순종하는 마음과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그러던 중 예방 백신 접종, PCR 검사,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 등의 거대한 장애물을 없애 주시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다.

탐사여행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었다. 43명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결해야만 했던 긴장되던 미국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마침내 김낙경 박사님과 서은주 간사님을 만났다. 37명의 학생과 6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우리 일행은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모하비 사막, 세도나, 그랜드캐니언을 보다

드디어 시작된 모하비 사막과 세도나를 거쳐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숙소에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김박사님께서 '화석', '노아 홍수', '공룡', '우주의 기원', '지구온난화', '빙하시대', '화산' 등에 관한 강의 를 해 주셨다. 아이들은 피곤한 중

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 강의를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의 눈앞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세도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바위들, 끝을 알 수 없는 그랜드캐니언의 지층들과 협곡들이 나타났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색과 기둥으로 여성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브라이스캐니언, 사암 절벽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들로 남성스러운 웅장함을 보여주는 자이언캐니언, 변성 화산암과 거대 화강암들의 향연, 알라바마 언덕,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은 사진으로는 감히 다 담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였으며 그분의 전능하심이였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 형용할 수 없는 감탄과 경이로움을 느낌과 동시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 자신의 창조물을 직접 심판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애통하심,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긍휼하심 또한 느낄 수 있었다. 홍수를 통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 극히 일부만이 남겨진 모습에도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

또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손상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그분의 온전한 창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또한 우리의 교만과 욕심 속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결단했다.

여정을 마치며 학생 10여 명 예수님 영접

창조과학탐사여행을 마무리하던 마지막 밤, 우리 아이들 중 10여 명이 지금까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교회에 나갈 것을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

아이들은 김박사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한 인도하심의 간증을 여행 내내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고 간접적인 소중한 경험을 누렸다. 또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운 영어를 사용하

여 어떻게 하든지 현지인들과 대화를 해 보려는 노력들을 하기도 했다. 약 열흘간의 여행을 통해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공동체에 불편을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칠지 알아가기 시작했다. 또 그렇게 행동하려는 성숙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8박 11일 간의 짧지 않은 창조과학탐사 여행을 통해 우리 일행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심판하셨고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변치 않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값진 시간들을 가질



▲ 그랜드캐니언. 출처: Sonaal Bangera on Unsplash

수 있었다. 또 누군가의 인생에 찾아 오셔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보석 같은 경험을 하기도 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순종한 우리 일행이 모

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창조과학탐사 여행을 마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GNPNEWS]

손병찬(삼성중학교 교감)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창조과학탐사, 그랜드캐니언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다



“창조론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창조과학탐사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창조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창조론을 보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오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고 다시 한 번 창조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진화론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과장되거나 거짓이었던 반면, 창조론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화론을 믿었지만 지금은 창조론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화론을 믿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

“그랜드캐니언에서 창조의 증거를 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며 현재도 교회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여행을 간다고 했

을 때 창조론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한 것은 진화론에 더 가까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창조과학탐사여행을 하기 전까지 창조론에 대한 많은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창조과학탐사여행에서 박사님의 강의와 그랜드캐니언, 브라이스캐니언, 자이언캐니언, 요세미티 등 많은 창조론의 증거들을 보가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창조를 하신 게 맞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더 깊게 주님께 대해 알아가며 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욱>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약 두 달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처음 가서도 뭐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에 오면서 각각의 캐니언들, 요세미티, 세도나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저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진화론, 공룡, 빙하기 등 여러 강의를 듣고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준>

“노아 홍수 심판에 관한 흔적들이 기억에 남네요”

자이언캐니언, 그랜드캐니언, 브라이스캐니언과 같은 노아 홍수 심판에 관한 흔적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이 과거 우리에게 내린 심판이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아름다웠고 이러한 흔적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저에게 매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준>

“증거를 보니 창조가 맞다는 확신이 들어요”

저는 원래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조금 더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창조가 진실이라는 증거를 직접 보고 만져보니 창조가 맞다는 것이 확신이 듭니다. 또 진화론은 화석에서의 중간 과정이 없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진화론은 증거가 없고 거짓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찬>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김중두 대표 (사단법인 올피플)

• 1면에 이어
- 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셨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장남인 형이 있었는데, 중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 가구공장에 다녔어요. 열악한 환경으로 분진 때문에 폐결핵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누님들은 형님을 살리려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형은 24살에 공주결핵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고, 저는 섬에서 누나를 그리워하며 하루 종일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면 친구들은 밥 먹으라고 부르는 가족이 있었지만,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해가 지기까지 모래사장에 혼자 남아 그림을 그렸어요. 매일 바닷가에 나가 그림을 그리면서 집안의 어두운 분위기와 외로움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유년시절

- 학교를 다니는 것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학창시절을 보내셨는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군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누나들이 전세금을 마련해 어머니와 저를 불렀는데, 그 돈을 사기당해 충남 서천의 도로변 빈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저를 전학시켜줄 사람이 없어서 충청도에서 전라도까지 배를 타고 통학을 했죠. 매일 왕복 40km를 자전거 타고 배를 타고 걸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늘 의문이었어요. 당시 저는 아버지 사건을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서 튼튼해진 제 다리를 보면서 육군사관학교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사 가겠다.”고 누나

그래서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다가 돌아왔어요. 어느 날부터는 책 귀퉁이에 낙서를 시작했고 책에 빈자리가 없어질 정도였어요.”
- 낙서를 했던 시간들이 어쩌면 지금의 김 대표님을 만드는 한 조각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에 갈 형편이 안되니 인문계는 포기하고 상고에 입학했어요. 하루는 2학년 때 미술 교생으로 오신 선생님이 집에 가려는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제 낙서를 유심히 보시더니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사랑이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미술실로 불러 데생을 가르쳐주셨어요. 방학 때는 서울로 불러 미술학원에서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어느 날 미술대학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제게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러고는 3년 동안 미술 학원비와 숙식비용까지 감당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대학에서 십자가의 은혜도 깊이 경험하게 됐어요.”
- 은혜의 연속이네요. 대학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건가요?
“아니요. 1987년 대학 입학을 앞두고 군산의 한 화실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운 어느 날, 화실 쪽방의 연탄불도 꺼졌어요. 어떻게 밤을 보내야 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 선배가 가까운 교회에 가서 몸을 녹이자고 하더군요. 밤 11시경에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선배는 강단으로 가서 옆드려 기도했고, 저는 떨림감치 뒤에 앉아 있다가 강단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바라본 십자가가 마치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지나온 제 인생이 영

서 열리는 부흥회를 다 찾아다녔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대학에서 한 선교단체를 알게 됐고, 그곳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용서의 십자가를 확신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하실뿐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게 됐어요. 복음을 깊이 알게 되고 복음만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때가 대학 2학년이었어요.”

선배 손에 이끌려 간 교회에서 주님 만나

- 그러면 기록만화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 김중두 화백이 그린 만화 작품들(좌)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전도만화. © 복음기도신문

“한 선교대회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세계기도정보 책을 보면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보만 모아놨기 때문에 재미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책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화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과정 끝에 조이출판사와 연결이 돼서 만화 기도정보를 만들게 됐어요. 이 책은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시간 날 때 틈틈이 열람실에 가서 그리면서 만든 책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 영혼이 선교를 위해 불타고 있었던 거 같아요.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를 그리다 보니 각 나라 상황을 다 알게 됐어요. 그때는 지도만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꿈틀거리기 정도였어요. 시간이 흘러 나라들의 정보가 변하게 돼, 기도24·365본부에서 새로 나온 기도정보를 만화로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기도24·365본부와 순회선교단을 만나게 됐네요. 이 책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직접 선교지에 나간 건 아니지만, 만화로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에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문화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증하게 됐어요. 당시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여서 선교에 대한 열정

이 많이 식어 있을 때였는데, 이때 기도정보책을 만들면서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 선교사로 헌신하신 꿈을 갖고 계속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군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중국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학생 비자도 있으니 최연소 선교사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안기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출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선교사로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었는데, 저를 안쓰럽게 여긴 선배가 신문사에서 시사만화를 그리는 일을 추천해줬어요. 만화를 할 생각도 없었는데, 하다 보니 적성에 맞았어요. 그러다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

해외 선교길이 막히자 만화로 선교하다

- 1년에 적어도 4권을 만드셨다는 말인데, 엄청나네요.
“10년 정도 하니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에 만족하면서 여기서 은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스티브잡스가 세상에 스마트폰을 내놨을 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화책으로 전도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인터넷의 바다에 제 만화를 무료



▲ 작업실에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김중두 화백. 제공: 김중두 대표

들에게 이야기하면 “너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연좌제에 걸려 있었더군요. 지금은 아버지의 간첩 혐의가 무혐의 처리됐지만 당시에는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다고 느꼈어요.

화처럼 지나가더니 눈물이 흐르고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를 포근하게 안아 주었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죠. 그 이후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군산 지역에

화를 보면서 기독교 지식도 이렇게 만화로 풀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994년에 ‘만화로 보는 세계선교발달사’를 만들게 됐어요.”
- 칼빈의 기독교강요도 만화로 쓰셨던데요? 그렇게 어려운 책을 어떻게 만화로 만들게 되셨나요?
“제가 원불교 교단이 세운 대학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섬길 때였어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원불교 법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원불교 법회에서 설교를 하는가?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독교를 제대로 공부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찾은 책이 기독교 강요였어요. 이 책을 읽다가 제 영혼에 큰 각성을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발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책을 만화로 만들어서 한국 교인들이 읽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5년간 묵숨 걸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다가 대상포진이 와서 잠시 작업을 쉬기도 했는데, 그 때 하나님이 제 열심이 너무 앞선다며,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책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책이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책이 나오게 됐고, 이 책을 계기로 전업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후로 10년간 40권 넘는 기독교 만화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로 나누어 주어야! 훗날 내가 채워 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인터넷 시대에 만화와 웹툰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이었는데, 그때 당장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당시 예상치 못하게 출판사 전속작가를 그만두게 되면서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만화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후 만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도전을 받고 복음만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만들었어요. 또 한국기독교실업인회 멤버들을 주축으로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올피플’을 만들었어요. 전국의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청소년집회, 외국인 마을을 다니며 만화로 복음을 전했어요. 골방에서 만화만 그리던 사람이 거리로 나가 외국인들에게 만화로 전도했어요.”
- 초점을 집중하면서 복음만화로 모아졌군요.
“좋은 소식은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 냈어요. 복음만화를 조금만 충실하게 읽어도 창조에서 계시록, 교회 생활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만화는 누구나 보니까 선교지에서도 이런 만화는 서로 갖고 싶어해요. 감사하게도 24개 언어로 번역 작업도 마쳤어요. 그러나 이런 만화도 나눠줄 수 없는 곳들이 있어
• 5면에 계속



선교 통신

케냐 북부 마사빗, 부족 분쟁으로 교회·성도들 집 불타

케냐 북부 에티오피아 접경지에 있는 마사빗 지역은 지난 8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이후 통행금지가 풀렸습니다. 군대가 주둔한 이후 주민들의 불법무기를 압수하면서 치안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염려했던 선거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끝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사빗 주변의 종족들은 암묵적으로 싸우지 말자고 약속을 하게 되었고 정말 이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평화로운 일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오지 종족들의 경계 부분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울트룻' 지역에 '가브라'와 '렌딜레' 부족 경계에서 6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지에는 가뭄으로 인해 물과 풀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

사빗 주변의 안정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경계지역에도 평화가 지켜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하면서 '마쟁고'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종족 간의 분쟁으로 마을에 방화가 있었고, 불에 탄 48가구가 다 마쟁고 교회 성도들의 집이었습니다. 한번은 목사님 가정과 마쟁고 지역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폐허가 된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부서져 있었고 안에 남아 있던 의자들도 모두 도난을 당했습니다. 부족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곳을 둘러보니 정말 처참했습니다.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언제 복구가 되어 사람들이 돌아오고, 교회에서 언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 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곳에서 다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리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했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을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쟁고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하실 때마다 이 지역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마사빗의 치안이 점점 좋아지는 듯 보이나 여전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라나'와 '가브라' 부족 간 임시적인 화해 구도가 있지만, 다른 부족과의 싸움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지에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순이나 다음 달 초에 '마



▲ 방화로 폐허가 되어 버린 케냐의 마쟁고 교회. 제공: 전요한 선교사

이코나'와 '발레사' 지역에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비네' 지역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GNPNEWS] 케냐=전요한 선교사

• 4면에 이어 Interview

메타버스에 바이블 랜드 건설해 10대와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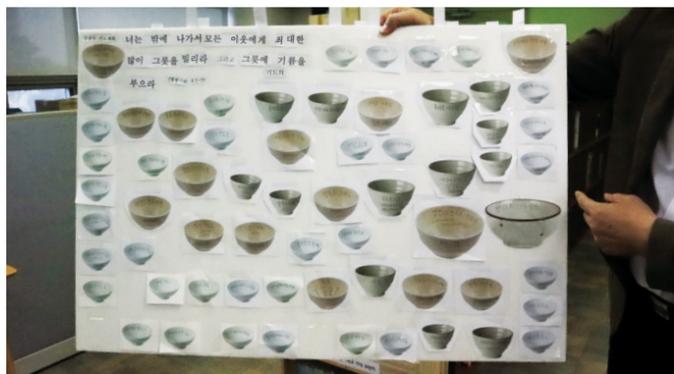
▲ 메타버스 바이블 랜드에 접속한 장면. 제공: 김종두 대표

요. 그런 곳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전해야 해요. 최근에는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무빙툰이예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아랍어 언어로 번역된 무빙툰을 전달하면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연락이 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가서 세례도 주고, 줌(ZOOM)으로 신학교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콘텐츠가 선교사예요. 기술과 콘텐츠를 이용해서 새로운 전도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전도만화를 1억 부 정도 발행해서 지구촌을 만화로 덮고 싶어요. 지금은 50만 부가 배포됐어요. 코로나 터지고 모든 것이 중단됐을 때는 오히려 인도는 인도적 지원의 문이 열리면서 음식과 함께 복음만화를 배포하게 됐어요. 한 인도 거지 할아버지는 만

화를 읽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수많은 인도인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자 연락을 하고 있어요. 또한 10대들을 위한 디지털 선교를 진행 중에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6장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이 '메타버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음으로 받아지면서 메타버스의 한 가상 공간인 제페토에 '바이블 랜드'를 건설했어요. 거기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구경할 수 있게 했어요. 앞으로는 시내산이나, 홍해, 성경의 장면들을 재현해서 성경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다음세대들과 채팅으로 이야기하는 전도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사도바울이나 다니엘, 요셉과 친구를 맺고 대화하는 바이블톡 챗봇을 개발하고 있고, 밤하늘에 드론으로 만화를 그리며 복음을 전하는 꿈도 갖고 있어요. 지난해 줌으로 웹툰스쿨을 진행했어

요. '병맛 천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있고, 웹툰 신인 작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웹툰 공모전, 시상식을 했어요. 또 미션아트라고 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가난한 화가들의 그림을 우리나라에서 전시하고, 우리나라의 유명 작가들이 그 마을에서 그림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함께 전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화가들의 믿음의 삶을 돕는 일을 계획 중에 있어요. 내년엔 캄보디아에 '올피플 아트스쿨'이 세워질 예정이예요" -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게 되셨나요? "어느 날 열왕기하 4장 말씀이 다가왔어요. 엘리사의 한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빗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토로하자 엘리사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고 빌려온 그릇 만큼 기름을 채워주는 내용이에요.

저는 빈 그릇을 빌려온 것뿐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해요.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빌려오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빈 그릇 사진들을 붙여놓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씩 이루어주셨어요. 아직 이뤄지지 않은 빈 그릇들도 많아요." - 끝으로 기도제목 말씀해 주세요. "3가지예요. 복음만화를 1억 부를 만들어 지구촌에 전달하는 것이고, 저와 같은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준비해 둔 빈 그릇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 제가 살아있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해서 10대들이 변화되고 교회의 주역이 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드러서 선교하는 일들을 보고 싶어요." [GNPNEWS] Y.K.



▲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근거로 만든 빈 그릇 기도제목. © 복음기도신문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10. 19 ~ 11. 8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종채 권순호 권혜령 김경선 김광희 김신애 김애심 김영순 김정희 김형숙 김혜신 박경희 박성규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유영권 이삼연 이상근 이영옥 이주선 이진희 장근혜 정요한 조명숙 조형광 차상복 최임주 최정욱 최정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김화제일교회 모두ENG 목자교회 문광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썬 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오예그교회 주나임교회 풀뿌리산곡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총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 (3)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 복음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치어서 날마다 세상에 끌려다닌다. 그러다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지옥의 심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생명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출발 자체가 기반도 예수 그리스도요, 목표인 부르심도 하나님 수준이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눅 4:6)

가장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이 최선을 다



일러스트=이예린

해 살았다. 그토록 영생을 추구하고 애를 쓰고 살아오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어려운 요구사항도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돈이나? 영생이나?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

님의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누리려는 것이다. 그런 영생이 돈하고 비교대상인가!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붙잡지 못한 채 우리 마음이 돈에 대한 애착과 정욕에 끌려간다. 종교적인 노력과 최선을

“
구원과 변화는
절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다
”

다했어도 내 마음 한 자락 옮기는 결단이 안 되면 38선 휴전선 넘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복음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결단을 못해서 평생 질질 매다가 결국 멸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 절통같이

경계를 지키고 서 있는 휴전선보다 더 견고하게 넘어 서지 못하는 게 있다면, 바로 내 마음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다. 그런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인간의 구원과 변화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현실에 급급해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타협하고 변질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교회의 기반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교회에 사람들이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없이는 온전히 복음대로 구원받아 지옥의 사람이 천국

의 사람으로 바뀌는 참된 변화는 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없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이나 제도로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의 성도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주신 유일한 선물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은 모든 상황에서 충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2018년 7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Jakin & Boaz

- 1

투어
 - 단기선교, 아웃리치 패키지
현장 선교사 연결(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 항공권
 - 성경문화탐방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선교사 가이드
 - 신혼여행
 - 복음기도동맹군 신혼 여행지 숙소 & 가이드 연결
 - 항공권 발권 대행
- 2

도서
 - 김용의 선교사 저서, 순회선교단 선교관학교 & 중보기도학교 필독서
 - 야긴 추천도서 50% 할인
- 3

전도용품
 - 메시지 머그컵·텀블러
 - 복음 마스크

문의 |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밖에서 본 이슬람, 무슬림 이해하기

신간

김종일 저

라비사 북스

2022

176쪽

1만 5000원

우리의 이웃이 된 **30여만 명의 무슬림**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나라에 이들은 왜 왔을까?
 우리 민족을 통해 잃어버린 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
 이 책을 통해 무슬림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자.

—추천사 중에서—

“밖에서 본다”라는 표현에서 저자의 조심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이슬람 신학과 전통을 공부한 것이 아닌데, 혹시 남의 종교를 곡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서 보면 전체를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밖에서 보면 안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더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김진홍(전 이집트 선교사)

복음기도총서2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eBook
출시

김용의 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비타민이 떨어지자 밤을 주셨다

최근 공동체에 아픈 지체를 돕고 돌아보던 중 나도 몸에 피로감과 두통이 오기 시작했다. 몸이 힘들어지자 비타민을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당장 재정이 없었다. 한순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살며시 고였다. 주님을 따라온 이 삶에서 나는 스스로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필요할 때마다 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오다 하필 그날, 당장 필요한 비타민과 재정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주님이 “야, 너 무엇을 믿고 있는 거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다. “아, 이게 나구나!” 수개월 동안 비타민이 떨어지지 않고 공급될 때는 알지 못했던 마음, 원하는 때에 필요한 것이 있었기에

아쉬움을 몰랐고, 그저 감사하는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아쉬움이 들어오자 나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 그즈음 주님은 평소엔 잘 먹지 않았던 밤을 계속 주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 하셨다. “딸아,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먹고 있는 거야!”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

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지금도 실제인가?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고후 13:5)

매순간 말씀으로 나를 깨우시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믿음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건강을 잃은 것 같을 때, 무언가 잘 살아온 것 같지 않아 빈 바구니만 들고 있는 것 같은 때, 두려움이 온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속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신 기쁨은 예수 생명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 무소유의 행복!! 세상이 줄 수 없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을 전부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GNPNEWS]

루디아



일러스트=고은선

셨다. 삶은 밤, 구운 밤, 생밤. 고단백의 밤을 계속 먹이시고, 아픈 지체를 섬기는 중에 함께 보양식까지 먹게 하셨다. 늦은 밤 잠자기 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손수 가져 먹여주시는 큼직한 생밤을 맛있게 씹고 있을

을 때야야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주님으로 인해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섬세한 그분의 사랑의 손길들이 보였다. ‘작은 비타민 하나가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가? 재정이 있으면 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심

복음의 소리 1670-3160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정신 질환의 일반적인 원인들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5)

신앙 상담은 심리적 요인 외에 뇌의 신경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정신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일반적 원인의 첫 번째는 유전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정신질환들은 그러한 경향성이 높으며 대표적으로 지적 장애나 자폐성장애, ADHD와 같은 신경발달장애와 조현병, 양극성기분장애(조울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다. 뇌의 여러 시냅스 사이에서 움직이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전달물질이 정상보다 더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뇌에 손상을 받는 경우다. 뇌졸중이나 뇌출혈, 뇌종양 등이 생기거나 뇌에 감염성 질환이 생길 경우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성격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겉으로는 똑같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아 보일 수 있어도 그 원인이 뇌의 기질적인 손상 때문인 경우가 있다.

네 번째는 신체 질환, 특히 뇌분비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다. 갑상선, 류마티스성 질환, 파킨슨병 등은 신체의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기분에 영향을 끼쳐 정신질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심리 환경적인 요인이다.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던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가족의 죽음이나 사업 실패 등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정신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원인들은 단독 원인만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정신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준다.

<계속> [GNPNEWS]



北, 의약품 없어 중국산 원료 사용한 의사를 ‘공개 처형’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 당국이 강력한 통제 틀 기반으로 당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 처형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강

원도 원산시에서 의사인 50대 남성 A씨가 이웃과 동료들 앞에서 공개 처형됐다. A씨는 의약품이 부족하자 중국산 원료를 구해 자신이 직접 제조한 페니실린, 마이신 등 항생제를 환자들에게 처방했는데, 이런 불법 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7월 함경북도 경성군 소재 호위국 소속 한 여단의 40대 중대장 B씨가 개인 주택 건설에 병력을 동원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대원들 앞에서 총살당했다. 실제 B씨 공개 처형

현장에서 한 군 간부는 “수뇌부 호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이 일어났다.”며 “중대장의 부정부패로 인해 군대의 기강이 와해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북한 당국이 경제난으

로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들을 다잡기 위해 공개재판이나 처형 등을 지속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해에는 김 위원장 영도 10년을 맞아 성과를 내기 위해 다그쳤다면 이제는 당의

포지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 처형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줘서 국가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GNPNEWS]



▲ 북한 평안남도 순천제약공장에서 2015년 생산된 페니실린. 특정기와 관련 없음. 출처: 데일리NK 캡처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탈북 청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는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고 8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미국 서부의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과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대학(UCLA)은 미국의 대북 민간단체인 링크(Link)와 공동으로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다. 두 대학 학생들

주최로 USC 대학에서 2일 열린 행사에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노아 씨와 국민대에 재학 중인 한나 씨 등 한국 내 탈북 청년 3명이 참석해 북한의 실상과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다. 한나 씨는 행사 후 링크의 트위터를 통해 “대학생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 생각할 때 정권이나 핵무기가 아닌 주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탈북 청년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의 삶을 학생들에게 자세히 전했다. 한나 씨는 특히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뿐 아니라 청소년 시절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해 한국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고 밤에 한국 음악에 맞춰 춤을 췄던 경험도 나눴다. 링크는

지난 한 달 동안 탈북 청년들과 일리노이주립대, 하버드대 등 여러 대학을 방문해 행사를 열었다. 박석길 링크 한국지부장은 “북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용감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은 이야기를 바꾸고 관심을 주민들에게로 돌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GNPNEWS]

美 대학들, 北 주민 삶·인권 조명 행사 잇따라

20주년 2022 완주감사예배로 초대합니다!

구원의 햇살로
깃발을 들라!

사 62:1, 10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를
기도 24·365

주최 : 기도24·365본부

후원 : 로그미션, 복음과기도미디어, 복음기도동맹사무국,
순회선교단,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 헤브론선교대학교,
헤브론원형학교(가나다순)

날짜 : 2022년 11월 24일(목)

시간 : 오후 6시 30분

장소 : 서울 화양감리교회(최상훈 목사)

문의 : 010-387-24365, 010-9440-4365

www.prayer24365.org